

임원중시·성과급 등 곳곳 구멍... ‘인재경영’ 되돌아보아야

위기의 삼성, **골든타임** 잡아라

〈下〉사내문화·보상체계

20대 직원 줄고 40대 이상 증가
경쟁사에 비해 성과급 지급 저조
인재 유출 심각... 기술혁신 정체

삼성전자의 젊은 인재들이 국내외로 빠르게 유출되면서 혁신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인재유출의 주요 원인은 삼성의 인력고령화와 경쟁사에 비해 2배 이상 적게 받도록 설계된 성과급 산정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늘어난 임원진들의 보여주기식 성과와 불합리한 성과급이 동기부여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이에 삼성전자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핵심 인력들이 국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물론 글로벌 기업인 엔비디아 등으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보상체계에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쟁력 저하는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 가운데 40대 이상이 20대 이하 직원 수를 앞지를 정도로 사내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까지만 해도 20대 인력이 전체 인력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10년 만에 40대 이상 직원이 추월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20대 직원 수는 2017년



삼성전자 본사 앞 직원들의 모습.

/뉴스시

17만1877명, 2019년 12만4442명, 2021년 8만8911명, 2023년 7만2525명으로 줄었다. 반면 40대 이상 직원은 크게 늘었다. 2010년에 2만명대에 그쳤으나 2018년 5만2839명, 2020년 6만1878명, 2022년 7만5552명으로 늘었다.

간부급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7년 기준 일반 직원이 80%, 임원을 포함한 간부급은 10%대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간부급 비중이 30%를 넘어섬에 따라 작년에는 일반 직원이 전체 65%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세는 삼성의 젊은 인재들이 유출을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특히 성과급 산정 기준은 인재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삼성의 성과급은 목표달성성장률(TAI), 연 1회 지급되는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연 1회 지급되는 초과 이익성과급(OPI) 지급 재원을 ‘경제적

급은 1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로 인해 삼성의 성과급 규모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비해 2배 이상 적게 책정되기도 한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 재원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구분되며 이와 별도로 격려금을 지급한다.

이에 올 상반기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상반기 PI 성과급을 상한선인 월 기본급의 최대 15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 2회 PI와 연 1회 PS도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75%에 그쳤다.

채용 플랫폼 링크트인에 따르면 엔비디아 임직원 중 삼성전자 출신이 515명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에는 엔비디아 출신 직원이 약 270명에 불과하다. 특히 삼성전자의 이직률은 TSMC보다 약 두 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경력 채용에도 삼성전자 출신 직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 5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은 지난달 18일 성명을 내고 “현재 OPI 제도는 회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삼성은 수평문화등 조직 쇄신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중희 삼성전자 DX 부문장(부회장)은 지난 1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사옥에서 타운홀 미팅 ‘DX 커넥트’를 주재하는 등 사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그는 “수평적 호칭 문화가 정착되고, 올해부터는 직급 표기도 없어진다”면서 “앞으로 부회장님 대신 JH라고 불러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장애인 날 이메일도 그의 이니셜 ‘JH’로 마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정부, 배달 생태계 손보나 중개수수료 법제화 가능성

배달앱-입점업체, 합의 지지부진
공정위 “최종 결렬시 후속방안 논의”

배달앱 입점업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 부담완화를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약체’(이하 상생협약체)의 합의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상한을 아예 법으로 정하는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정부의 배달플랫폼에 대한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엄정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상생협약체는 지난 7일까지 100여일 동안 총 11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핵심 쟁점인 중개수수료 인하 합의에 사실상 실패했다.

마지막 회의에서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 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2위 업체인 쿠팡이츠도 같은 수준으로 낮출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쿠팡이츠는 2.0~9.5% 범위 차등수수료 부과안을 내 배달보다도 높은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약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4개 입점업체 단체는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

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이정희 상생협약체 위원장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의 상생방안을 제시하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생협약체는 11일까지 배민과 쿠팡이츠에 각각 개선된 상생안과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안을 다시 제시하라고 했다. 수수료율 인하 합의를 위한 최종 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이 입점업체 요구안은 물론 공익위원 중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특단의 상생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중개수수료 합의는 최종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약체 주무부처인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종 합의 결렬시 정부측 계획을 묻는 질문에 “최종 결렬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율 상한 입법에 대해선 “(입법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화생명 The 시그니처 암보험(무)

암 치료비
필요한 만큼
더 든든하게 보장

암보호시스템
예방부터 회복까지
더 세밀하게 보호

보장에 보호를 더해서
더 강력하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암 치료비를 보장하고
국내 유일의 Need 암보호시스템으로
암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암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한화생명 The 시그니처 암보험(무)을 만나보세요

한화생명 The 시그니처 암보험(무)

Need 암보호시스템 한화생명의 제휴사 Nee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암 진단 전, 중, 후에 걸쳐 고객님을 암으로부터 보호합니다

Need 암보호시스템은 한화생명 시그니처암보험 2.0,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 한화생명 The 시그니처 암보험,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 가입 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청약 시 암보호시스템 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 한하여 제휴업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여야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이 유지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Need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Nee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Need에 있습니다. 암 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91일부터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년 또는 2년 이후 지급금의 25%(가입 후 18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한함) 또는 50%만 지급합니다. 본 상품은 비갱신형 또는 갱신형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또는 30년 만기 갱신 중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80세, 90세, 또는 100세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4-07058호 (2024-10-30 ~ 2025-10-29)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4-10-058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한화생명